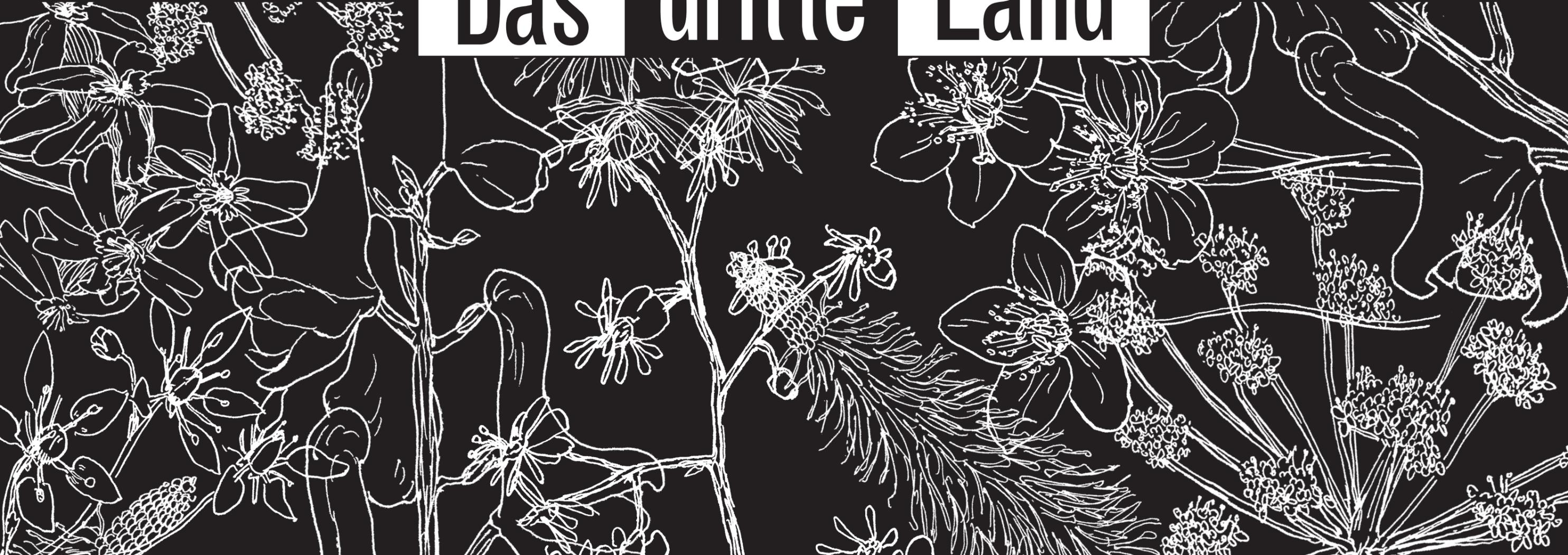




Das dritte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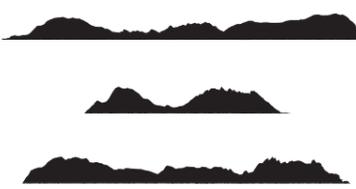


Auf dem Matthäikirchplatz am Kulturforum wachsen seit dem 23. Mai 2019 Pflanzen aus Süd- und Nordkorea zusammen. Der Eröffnungstermin fällt nicht zufällig in das Jahr des Mauerfalls. Der Künstlergarten DAS DRITTE LAND spiegelt im Jubiläumsjahr zum 30-jährigen Mauerfall als Ort für politische Betrachtungen die Geschichte Deutschlands und die Gegenwart Koreas wider. Die koreanischen Künstler Han Seok Hyun und Kim Seung Hwoe möchten mit dem Projekt das Vorhandensein von Grenzen und die Hoffnung auf ihre Überwindung ins öffentliche Bewusstsein zurückholen.

Ein Künstlergarten im Kulturforum, Berlin

Das dritte Land



Das dritte Land	Wachsende Träume Blühende Utopien
<p>Ledebouriella seseloides (Hoffm.) H.Wolff</p>  <p>Baekdaegan Länge = 1470 Km</p> <p>Klassifikation Umbelliferae Blütezeit Juli–August Höhe 100 cm</p>	 <p>Matthäikirchplatz, Berlin/Kulturforum</p>

Künstler

**HAN SEOK HYUN
KIM SEUNG HWOE**

Kuratorin

**KEUMHWA KIM,
Keum Art Projects**

24. 5. 2019 – 30. 5. 2021

**Matthäikirchplatz,
10785 Berlin**

Pflanzenliste



Das Baekdudaegan-Gebirge verbindet seit über als 60 Jahren das geteilte Korea, seine Pflanzenwelt bildet die Brücke, die auf einem einmaligen gemeinsamen botanischen Erbe ruht. Von den 23 nordkoreanischen und 37 südkoreanischen Pflanzenarten, die an den Bergen des Baekdudagen wachsen und blühen und für das Projekt ausgewählt wurden, konnten bisher 45 Setzlinge und Samen aus dem geteilten Land nach Berlin geholt werden. Davon stammen 31 aus Südkorea und 14 aus Nordkorea.

Pflanzenliste

1-6

1

식물명 지리대사초
 학명 *Carex okamotoi* Ohwi
 개화 4~6
 꽃색 ●
 형태 다년생
 생육환경 낙엽수림하부, 숲가장자리에서 자란다
 크기 15~20cm
 개체수 3,050
 우점도(%) 46,11



4

식물명 금강제비꽃
 학명 *Viola diamantiaca* Nakai
 개화 6~7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
 크기 —
 개체수 345
 우점도(%) 5,22



2

식물명 태백제비꽃
 학명 *Viola albida* Palib.
 개화 4~5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산지에난다
 크기 높이 25cm
 개체수 646
 우점도(%) 9,77



5

식물명 할미밀망
 학명 *Clematis trichotoma* Nakai
 개화 6~8
 꽃색 ○
 형태 낙엽활엽 덩굴식물
 생육환경 산야에서 흔히 자란다. 숲가장자리에서 자란다. 내한성이 강한 양지식물로서 내음성과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약하다.
 크기 길이 5m, 지름 3cm
 개체수 310
 우점도(%) 4,69



3

식물명 금강애기나리
 학명 *Streptopus ovalis* (Ohwi)
 F.T.Wang & Y.C.Tang var. *ovalis*
 개화 4~6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높은산골짜기나 산의 침엽수림가에 난다
 크기 10~20cm
 개체수 505
 우점도(%) 7,63



6

식물명 고려엉겅퀴
 학명 *Cirsium setidens* (Dunn) Nakai
 개화 7~10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산지의 기슭이나 골짜기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 약1m
 개체수 157
 우점도(%) 2,37



7

식물명 터리플
 학명 *Filipendula glaberrima* (Nakai) Nakai
 개화 7~8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깊은 산의 계곡 주변이나 습윤지,
 주로 양지에 생육한다.
 크기 높이 약1m
 개체수 110
 우점도(%) 1,66



10

식물명 도깨비부채
 학명 *Rodgersia podophylla* A.Gray
 개화 6~7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일본, 중국 / 한국(중부 이북의 심산지역)
 크기 높이 1m
 개체수 45
 우점도(%) 0,68



8

식물명 일월비비추
 학명 *Hosta capitata* (Koidz.) Nakai
 개화 6~7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산속 시냇가와 같은 습지에서 자란다.
 크기 꽃대는 높이 50-60cm이다.
 개체수 74
 우점도(%) 1,12



11

식물명 가는장구채
 학명 *Silene seoulensis* Nakai
 개화 7~8
 꽃색 ○
 형태 한해살이풀
 생육환경 중부이남 산지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가 50cm정도에 이른다.
 개체수 43
 우점도(%) 0,65



9

식물명 개망초
 학명 *Erigeron annuus* (L.) Pers.
 개화 6~7
 꽃색 ○●
 형태 두해살이풀
 생육환경 전세계의 온대 지방에 널리 퍼져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도 분포한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크기 높이가 30-100cm 이다.
 개체수 66
 우점도(%) 1



12

식물명 죽대
 학명 *Polygonatum lasianthum* Maxim.
 개화 5~6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충북(속리산), 경북 이남에 나며
 일본에 분포한다.
 크기 높이 30~70cm이다.
 개체수 39
 우점도(%) 0,59



13

식물명 참배암차즈기
 학명 *Salvia chanryonica* Nakai
 개화 8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한국(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북도 봉화군; 가야산)
 크기 높이 50cm정도이다.
 개체수 27
 우점도(%) 0,41



14

식물명 망초
 학명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개화 7~9
 꽃색 ○
 형태 귀화식물이며, 1~2년초이다.
 생육환경 전도에 나며 널리 분포한다.
 크기 높이 1~2m이다.
 개체수 25
 우점도(%) 0,38



15

식물명 장딸기
 학명 *Rubus hirsutus* Thunb.
 개화 5~6
 꽃색 ○
 형태 낙엽 활엽 반관목
 생육환경 중국, 일본; 전라남도 및 제주도.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크기 높이 20 ~ 60cm
 개체수 15
 우점도(%) 0,23



16

식물명 질경이
 학명 *Plantago asiatica* L.
 개화 6~8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일본, 사할린, 중국, 동시베리아, 말레이시아에 분포한다. 전국에 야생한다.
 크기 꽃대가 높이 10-50cm 정도 자란다.
 개체수 15
 우점도(%) 0,23



17

식물명 흰여로
 학명 *Veratrum versicolor* Nakai
 개화 7~8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산지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 1m
 개체수 14
 우점도(%) 0,21



18

식물명 가야산은분취
 학명 *Saussurea pseudo-gracilis* Kitam.
 개화 8~9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심산 지역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 35~70cm이다.
 개체수 14
 우점도(%) 0,21



19

식물명 돼지풀아재비
 학명 *Parthenium hysterophorus* L.
 개화 9~11
 꽃색 ○
 형태 한해살이풀
 생육환경 북미, 호주, 일본에 귀화하였다. 경남 충무시에서 3년간 연속 채집, 더욱 번져가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크기 높이 30~90cm이다.
 개체수 12
 우점도(%) 0,18



20

식물명 정영영경귀
 학명 *Cirsium chanroenicum* (L.) Nakai
 개화 7~8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지리산, 가야산, 조령 및 구례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 50~100cm이다.
 개체수 10
 우점도(%) 0,15



21

식물명 톱풀
 학명 *Achillea alpina* L.
 개화 7~10
 꽃색 ○
 형태 속근성 여러해살이풀로 관화식물
 생육환경 전국의 산야에 흔히 분포한다.
 크기 높이 50~110cm
 개체수 8
 우점도(%) 0,12
 식재여부 산툼풀 식재



22

식물명 투구꽃
 학명 *Aconitum jaluense* Kom. subsp. *jaluense*
 개화 9
 꽃색 ●●
 형태 속근성 여러해살이풀로 관화식물
 생육환경 한국, 만주에 분포한다. 전국 각지에서 자라나 주로 속리산 이북에 분포한다.
 크기 높이 1m에 달한다.
 개체수 7
 우점도(%) 0,11



23

식물명 선갈퀴
 학명 *Asperula odorata* L.
 개화 5~6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중부 이북과 경상 북도 울릉도 산지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 25~40cm 가량된다.
 개체수 6
 우점도(%) 0,09



24

식물명 왕등굴레
 학명 *Polygonatum robustum* (Korsh.) Nakai
 개화 6~7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한국(경상북도 울릉군)
 크기 높이가 30~60cm정도에 이른다.
 개체수 5
 우점도(%) 0,08



25

식물명 홍지네고사리
 학명 *Dryopteris erythrosora*
 (D.C.Eaton) Kuntze
 개화 —
 꽃색 ●
 형태 —
 생육환경 일본, 중국, 산지의 숲 속
 크기 —
 개체수 4
 우점도(%) 0,06



26

식물명 올리불나무
 학명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개화 3~4
 꽃색 ●
 형태 낙엽 활엽 관목
 생육환경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분포.
 크기 높이 1m
 개체수 4
 우점도(%) 0,06



27

식물명 실고사리
 학명 *Lygodium japonicum* (Thunb.) Sw.
 개화 7~10
 꽃색 ●
 형태 하록성이다.
 생육환경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네팔, 호주 숲
 속이나 산야의 양지 바른 곳
 크기 길이 1-4m
 개체수 4
 우점도(%) 0,06



28

식물명 바위수국
 학명 *Schizophragma hydrangeoides*
 Siebold & Zucc.
 개화 7
 꽃색 ○
 형태 낙엽 활엽 덩굴성
 생육환경 일본; 울릉도, 제주도 분포.
 크기 길이 10m.
 개체수 3
 우점도(%) 0,05



29

식물명 큰천남성
 학명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개화 5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전남, 경남의 계곡이나 남쪽 섬에서 자란다.
 크기 꽃대는 길이 3-10cm이며
 잎은 길이 15-25cm의 엽병이 있다.
 개체수 3
 우점도(%) 0,05



30

식물명 매화말발도리
 학명 *Deutzia uniflora* Shirai
 개화 4~5
 꽃색 ○
 형태 낙엽 활엽 관목
 생육환경 일본; 황해도 및 강원도 북부 이남.
 바위틈에서 자란다. 내한성과 내음성,
 내건성이 강하며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큰 포기를 이루어 자란다.
 크기 높이 1m
 개체수 3
 우점도(%) 0,05



31

식물명 통등굴레
 학명 *Polygonatum inflatum* Kom. (D.C.Eaton) Kuntze
 개화 5~6
 꽃색 ●
 형태 여러해살이풀
 생육환경 전국 산지에 분포한다. 산지 숲속의 나무 그늘에서 자란다.
 크기 높이는 30-80cm이다.
 개체수 3
 우점도(%) 0,05



32

식물명 늦고사리삼
 학명 *Botrychium virginianum* (L.) Sw.
 개화 —
 꽃색 —
 형태 —
 생육환경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북미 산지의 숲 속
 크기 높이 30-70cm
 개체수 2
 우점도(%) 0,03



33

식물명 보리밥나무
 학명 *Elaeagnus macrophylla* Thunb.
 개화 9~10
 꽃색 ●○
 형태 상록 활엽 덩굴성
 생육환경 일본; 경상남북도, 울릉도, 전라남북도 ~ 충청남도 및 경기도 황해도에도 분포.
 크기 길이 2 ~ 3m
 개체수 2
 우점도(%) 0,03



34

식물명 금족제비고사리
 학명 *Dryopteris gymophylla* (Baker) C.Chr.
 개화 —
 꽃색 ●
 형태 상록성이다
 생육환경 일본, 중국, 산지나 숲 속이나 산비탈
 크기 —
 개체수 1
 우점도(%) 0,02



35

식물명 눈향나무
 학명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개화 4~5
 꽃색 ●
 형태 상록 관목이며, 높이 2m, 원줄기는 포복성으로 옆으로 비스듬히 위를 향해 자란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및 강원 이북 등 아고산지대
 크기 높이는 75cm 이하, 길이 5m 내외로 땅을 기며 자람.
 개체수 1
 우점도(%) 0,02



Das dritte Land

Ein soziales Kunst- projekt mit 145 Unterstützern weltweit

32,200 €

142

UnterstützerInnen

31 Tage

18. 3-17. 4. 2019

Über 145 UnterstützerInnen weltweit haben innerhalb von dreißig Tagen mehr als 30.000 Euro für den Transport und die Pflege der Pflanzen sowie den Aufbau des Gartens gespendet.



[we](#) [make](#) [it](#) [Log In](#)

[About wemakeit](#) [Start a Project](#) [Discover Projects](#) [Blog](#) [Events](#) [D F I E](#) [Like 26K](#)

Das dritte Land - Art Garden

In the heart of the once divided city of Berlin we will create a poetic landscape that brings the still divided Korea together by means of plants and flowers. Help us start a dialogue!

A crowdfunding project by Keum Art Projects, Han Seok Hyun, and Seung Hwoe Kim, [politics](#), [art](#), and [environment](#), [Berlin](#) and [Seoul](#).

[About](#) [News 7](#) [Backers 142](#) [Comments 1](#)



Project Status	
○ 32'200	of EUR 30'000 pledged
○ 142	backers
○ 3	hours to go

[f](#) 365 [t](#) 0 [in](#) 0 [e](#) 10 [code](#)

[Back This Project!](#)

Sooyeun Choi, Flora Jaehee Choi, Seheub Hong, Joonho Shin, Dina Ryu, Younwon Sohn, Kirim Nam, Martin von den Drie, Richard Humann, Eunhae Kim, Julie Walsh, Yunjae An, Hyojae An, Youngchul Kim, Mareike Walter, Christian Frey, Jihyun Kim, Sibylle Einholz, Sungjin Song, Beate Scheder, Kunalum Lee, Sungha Ghim, Eunjeung Lee, Noeul Kim, Daniel Josling, Denise Frank, Uijoon Lee, Tobias Wachter, Eunjung Kwak, Zaryong Zo, Junho Seo, Hedwig Schaefer, Jeonghoon Lee, Robin Resch, Hanna Kang, Kunwoo Ro, Wook Park, Seungha Lee, Whayong Shin, Maria-Jose Devooght, Soojin Choi, Kukhyoen Jang, Inho Kim, Hyerim Lee, Jaewook Kim, German Hoch, Gyusik Lee, Sooim Jung, Axel Hrdina, Haejoon Jung, Dongjun Ki, Seonghee Song, Emiko Kida Kyoungah Choi, Annika Haas, Taeyeong Kim, Nohyoung Park, Sangah Jo, Dongryoung Han, Robert Bauer, Jeewi Lee, Hera Hwang, Micky Jung, Young Choi, Sungmu Jang, Hyojun Hyun, Erika Kurebayashi, Merle Walter, Panseok Seo, Inboon Hwang, Youngho Lee, Sanghyun No, Hoeun Jung, Simon Bäse, Uta Rahman Steinert, Yujin Lee, Seokkyu Yu, Pyungjoo Suh, Seol Park, Nikos Dikas, Jeongsoon Kim, Pilju Suh, Myunghyun Lee, Jin Han, Eunju Kang, Minjoo Suh, Donghwa Lee, Samsuk Park, Eunyong Lee, Seonyoung Cho, Shinae Kim, Bokhyun Han, Daun Chung, Suejin Hong, Seungeun Baek, Sunkyu Lee, Anna Schlumberger, Jiyoung Jeong, Byunghoon Park, Hyeekyung Ha, Benedikt Buechel, On Kim, Naomi Exquis, Jayoo Seo, Teaksoo Kim, Jinwon Yi, Geuntaek Yoo, Minju Seo, Jinhoi Kim, Yunseung Jo, Soohwoe Kim, Hyeongbog An, Jiyoung Lee, Eunjung Ahn, Hyewon Koo, Hansol Kang, Jiwon Hyun, Denise Frank, Choulgyu Lee, Sungjin Jeon, Tobias Asmuth, Eno Lee, Jiyoung Park, Jongchan Bak, Kate Rhee, Lena Markus, Jeongmoon Choi, Dongin Kim, Nabi Nara, Dongjun Lee, Suengmin Lee, Youngae Jang, Kijun Kim, Thisweekend Room, Jungme Chai, Rory McClelland, Bohyeon Kim, Eunchul Huh, Jungah An, Kahee Jeong, Jinhwan Bae, Miza No, Yukako Kondo, Jaekwan Kim, Youngchul Seo, Jaekyung Kim, Sangyoung Choo, Hanbai Kim.

Pflanzentransfer von Seoul nach Berlin

Insgesamt 1500 Setzlingen aus Südkorea sind nach dem Erlaubnis vom Pflanzenschutzamt Berlin und Naturschutzamt Republik Korea am 20. April 2019 in Berlin gelandet.



- | | | | | |
|-----------|----------|-----------|-------------|----------|
| 1. 두루미꽃 | 7. 물매화 | 13. 왜솔다리 | 19. 왜우산풀 | 25. 방풍 |
| 2. 기생꽃 | 8. 노루귀 | 14. 천궁 | 20. 바이칼평의다리 | 26. 가침박달 |
| 3. 산용담 | 9. 들단풍 | 15. 나도옥잠화 | 21. 가는오이풀 | 27. 개쉬땅 |
| 4. 관모개미자리 | 10. 바람꽃 | 16. 단풍취 | 22. 뚝갈 | 28. 참으아리 |
| 5. 산자고 | 11. 민백미꽃 | 17. 장구채 | 23. 터리풀 | 29. 강활 |
| 6. 솔다리 | 12. 백작약 | 18. 평의다리 | 24. 큰까치수염 | |

Pflanzentransfer von Seoul nach Berlin



- | | | | |
|-----------|-------------|----------------|--------------|
| 1. 두루미꽃 | 10. 물매화 | 17. 백작약 | 28, 29. 단풍취 |
| 2, 3. 바람꽃 | 11. 노루귀 | 18, 19. 두메부추 | 30, 31. 장구채 |
| 4. 산용담 | 12, 13. 들단풍 | 20, 21. 왜솔다리 | 32, 33. 왜우산풀 |
| 5. 오랑캐장구채 | 14. 바람꽃 | 22, 23. 천궁 | 34. 눈개승마 |
| 6, 7. 산자고 | 15. 민백미꽃 | 24, 25. 벼룩이울타리 | 35. 가는오이풀 |
| 8, 9. 솔다리 | 16. 백작약 | 26, 27. 산뽕풀 | |

Pflanzentransfer von Seoul nach Berlin



20. Apri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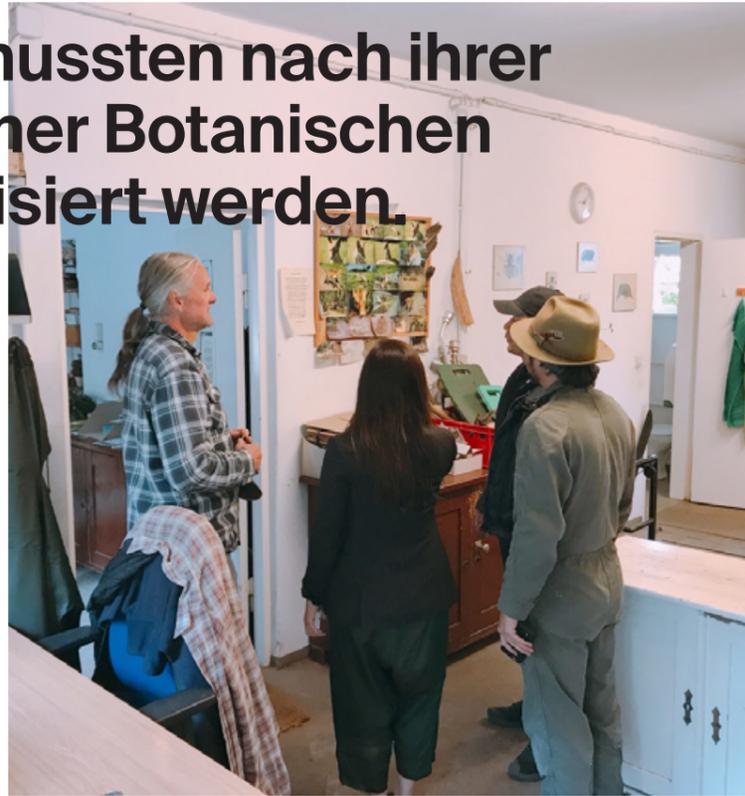




23. April 2019



Die Setzlingen mussten nach ihrer
Ankunft im Berliner Botanischen
Garten akklimatisiert werden.



24. April 2019





26. April 2019





28. Apri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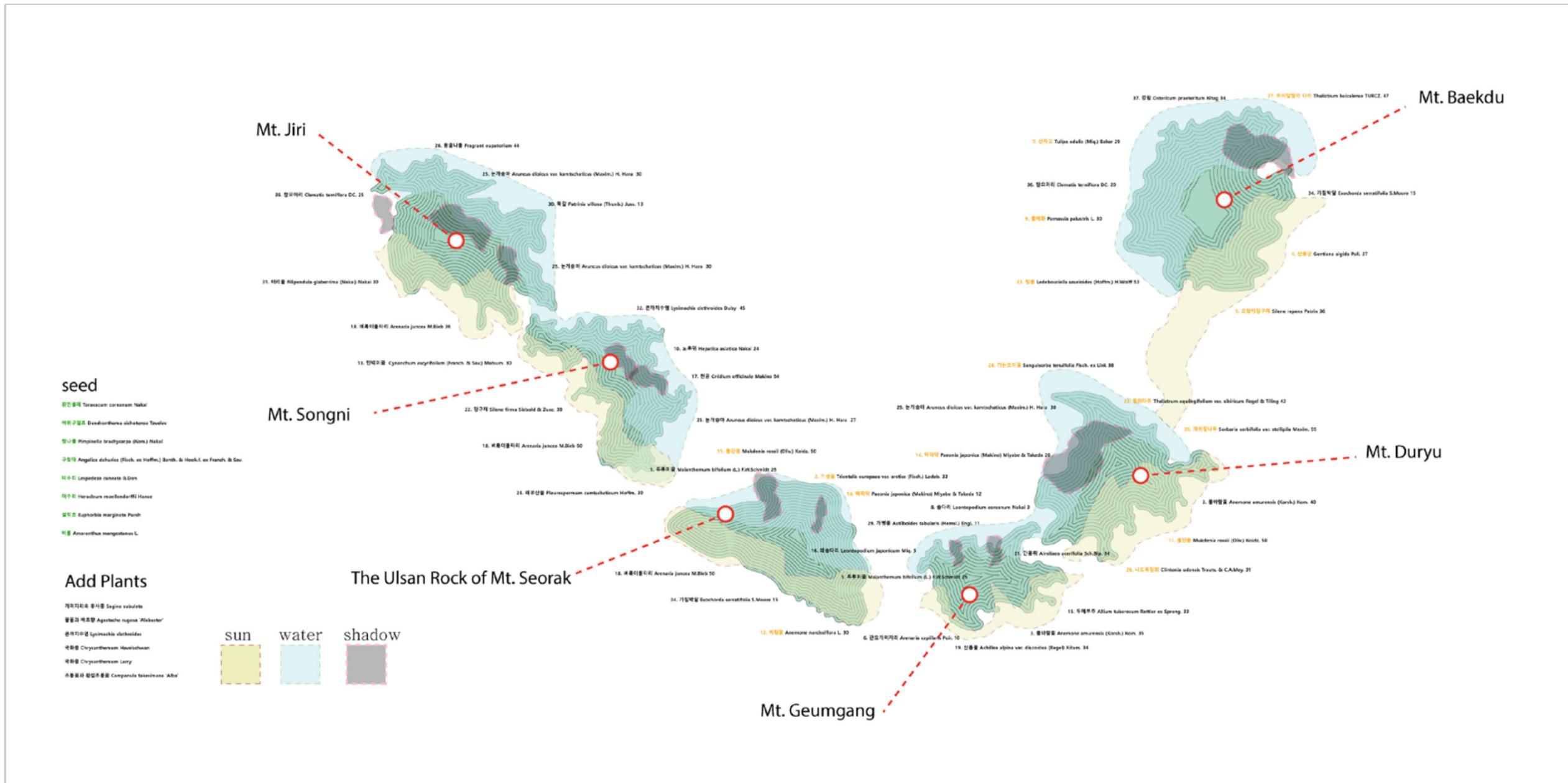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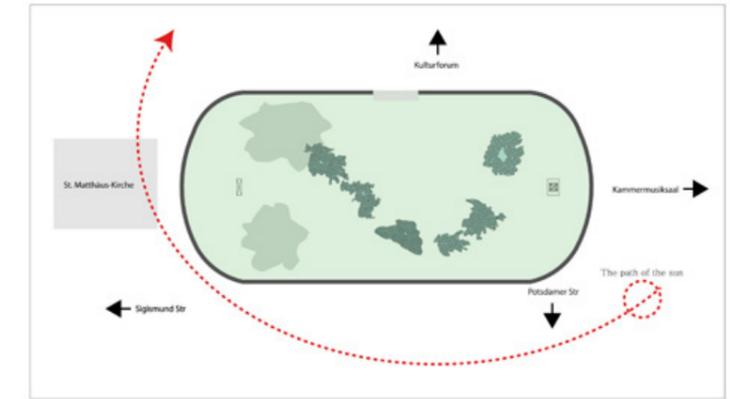
Aufbau vom 03. Mai bis 19. Mai 2019

Ausführende Firma:

Ingo Bauditz GmbH

Landschaftsarchitektbü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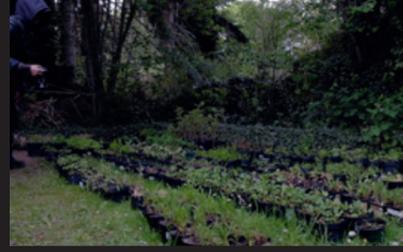
FUGMANN JANOTTA und PARTNER mbB





3. Mai 2019







**„Das Dritte Land“ seit der
Eröffnung am 23. Mai 2019**



Das dritte Land Prozessuale Kunst im urbanen Raum



Seit der Eröffnung wachsen im Garten ca. 35 nord- und südkoreanische Pflanzenarten. Als prozessuale Kunst im Stadtraum bewundern viele Besucher zu jeder Jahreszeit die fremde botanische Vielfalt und das Nebeneinander mit einheimischen Pflanzen.



DAS DRITTE LAND, HAN SEOK HYUN, KIM SEUNG HWOE, 2019



28. August 2019





바이칼펑의 다리 *THALICTRUM BAICALENSE* TURCZ.



방풍, *LEDEBOURIELLA SESELOIDES* (HOFFM.) H. WOLFF



바람꽃, *ANEMONE NARCISSIFLORA* L.



큰까치수염, *LYSIMACHIA CLETHROIDES* DUBY



벼룩이 울타리, *ARENARIA JUNCEA* M.BIEB



왜우산풀, *PLEUROSPERMUM CAMTSCHATICUM* HOF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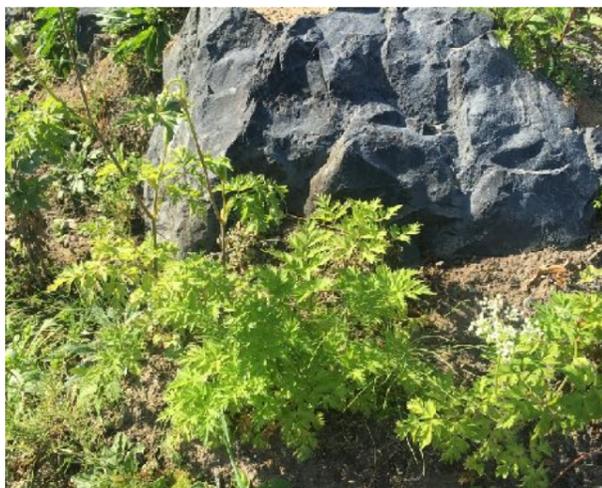
가는오이풀, *SANGUISORBA TENUIFOLIA* FISCH. EX LINK



개취땅나무, *SORBARIA SORBIFOLIA* VAR. *STELLIPILA* MAXIM.



산톱풀, *ACHILLEA ALPINA* VAR. *DISCOIDEA* (REGEL) KITAM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장구채, *SILENE FIRMA* SIEBOLD & ZUCC.



참으아리 *CLEMATIS TERNIFLORA* DC.

Performance-Programm

The Nature of Action

Im Rahmen des Projektes lädt die Kuratorin Kuemhwa Kim, Künstler*innen ein, zu den Themen: Grenze und Utopie, Kunst und Politik, Performances, Lesungen und Lecture-Performances zu präsentieren. Der Künstlergarten verwandelt sich in den Performances der Reihe The Nature of Action in eine Bühne, auf der Erfahrungen mit Grenzen aus unterschiedlichen Blickwinkeln verhandelt werden.

Aufgewachsen im Grenzgebiet zwischen Nordirland und der Republik Irland war für David Sherry und seine Familie die Grenze allgegenwärtig. Angesichts des Brexits und der Gefahr einer neuen harten Grenze zwischen Nordirland und der Republik Irland stellt David Sherry auf dem „Dritten Land“ eine Performance zu seinen Grenzerfahrungen vor. Sie besteht aus Stand-Up-Comedy, Ideen, Aktionen und Erzählunge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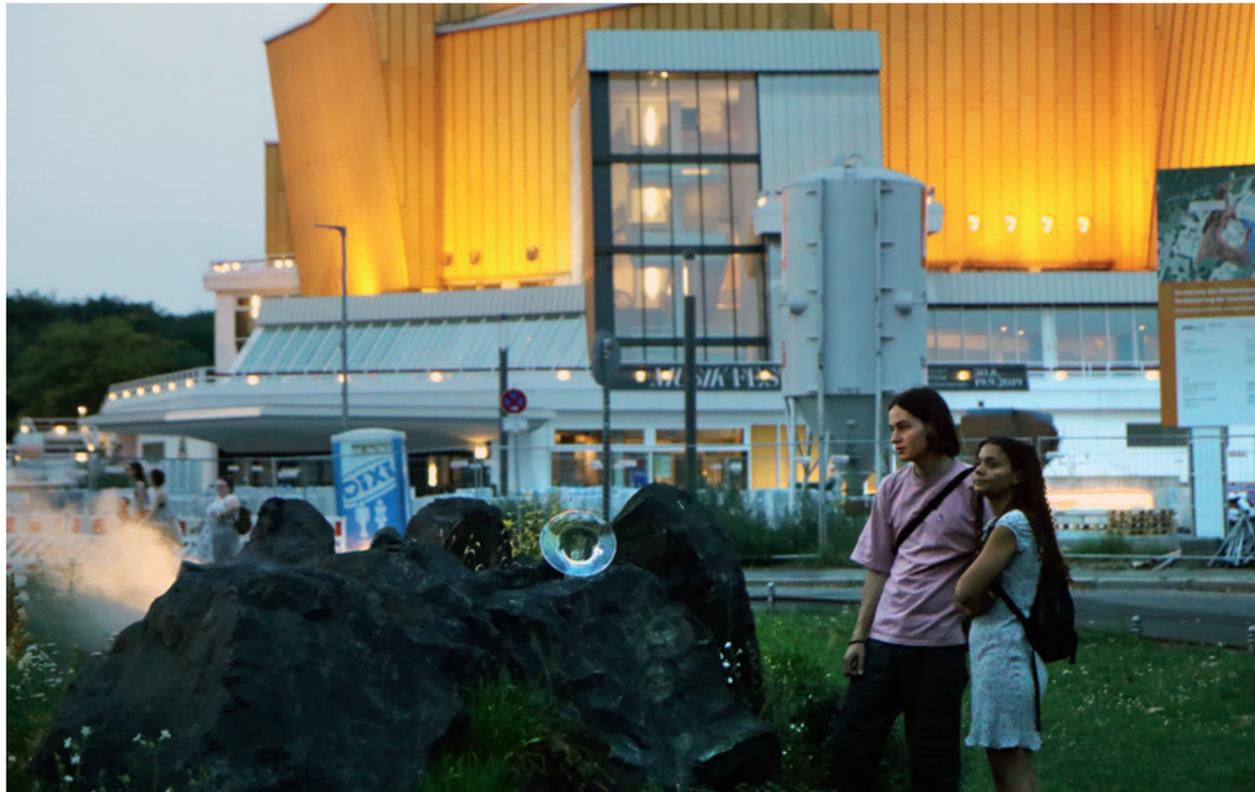


DAVID SHERRY

Am 27. Juli, um 19 Uhr
Matthäikirchplatz, 10785 Berlin

#2

Der italienische Komponist und Sound-Künstler zeigt eine Klang-Performance mit Klavier und mit drei vom Künstler selbst angefertigten Hörnern aus Glas. Sein Sound basiert auf Aufnahmen von Wetterimitationen aus seinem Projekt, "The Weather Imitators, Il Coro delle Intemperie", das er seit zwei Jahren in verschiedenen Ländern verfolgt. Dafür kreiert Francesco Cavaliere an den Orten, an denen er sich befindet, basierend auf meteorologischen Daten eigene graphische Notationen, die er dann durch Chorgruppen vertonen und aufnehmen lässt: Ein Singen und Flüstern, Pusten und Pfeifen imitiert die endemische Wetterlage des jeweiligen Ortes. Mit seinem Projekt will der Künstler eine Anthropologie spezifischer Wetterklänge schaffen.



FRANCESCO CAVALIERE Imitatori del Tempo (il tempo sussurrato)

Am 27 August, um 19 Uhr
Matthäikirchplatz, 10785 Berlin

#3

In seinem Performance, "Frühlingsputz" wird Byung Chul Kim den Weg von der südkoreanischen Botschaft zur nord-koreanischen Botschaft im Stil einer buddhistischen Pilgerreise "오체투지(五體投地)" abschreiten. Buddhistische Mönche pilgern, indem sie Schritt für Schritt eine Verbeugung ausführen; durch diese physisch sehr anstrengende Art der Fortbewegung versuchen sie geistige Ziele zu erreichen und zeigen sich im Zustand der äußersten Demut. Für den ca 3 km langen Weg wird der Künstler ca 3000 Verbeugungen brauchen. Dieses mühevollen Abschreiten soll den schwierigen Prozess einer Wiedervereinigung symbolisie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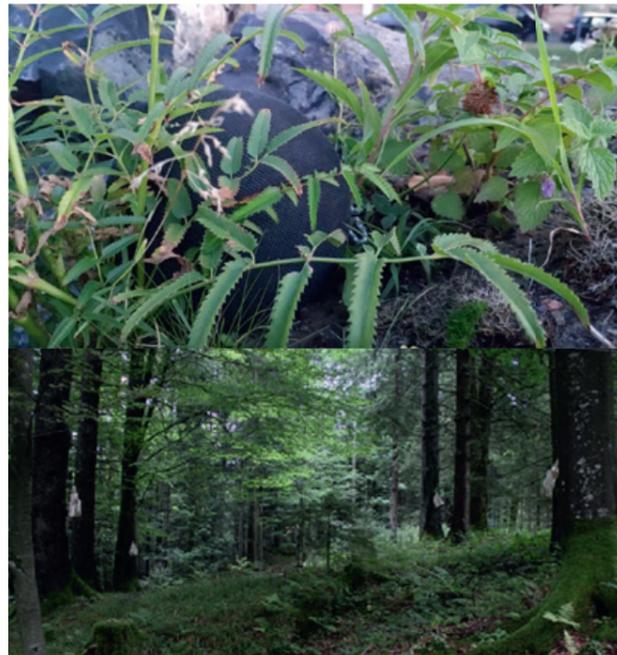


Byung Chul Kim Frühlingsputz

6. September um 9 Uhr 19 Uhr
Beginn vor dem Eingang der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Berlin
Ende vor dem Eingang der Botschaft der Demokratischen Volkrepublik Korea, Berlin

#4

Über zwei Tage hinweg präsentiert der japanische Künstler, Atsushi Fukunaga im Rahmen der "The Nature of Action" auf dem "Dritten Land" eine Klanginstallation. Die Installation besteht aus einer Vielzahl onomatopöischer (lautmalerischer) Wörter, die die Geräusche aus Natur imitieren. Für Das Dritte Land sammelte Fukunaga spezielle Geräusche der Insekten und Vögel, die in den beiden Ländern Korea und Japan gemeinsam leben und ließ sie durch Koreaner und Japaner aus Berlin lautmalerisch nachahmen. Auch wenn es um den gleichen Vogel geht, sind die Lautmalereien der beiden Länder unterschiedlich, da Kultur und Sprache die Wahrnehmung des Gehörten beeinflussen. Fukunaga thematisiert dabei die unsichtbare Grenze zwischen Japan und Korea, die sich angesichts des Handelsstreites zwischen den beiden Ländern zuzuspitzen scheint. Der Künstler konstruiert eine Klanglandschaft, in der die durch Japaner und Koreaner animierten Naturklänge im Künstlergarten zusammenspielen. Dabei träumt er von einer Utopie, in der die politischen und sozialen Grenzen zwischen den beiden Ländern im dritten Land aufgelöst werden.



ATSUSHI FUKUNAGA, DUET IN NO-MANW'S-LAND

13. und 14. September 2019
jeweils von 16 bis 21 Uhr
Matthäikirchplatz, 10785 Berlin

#5

In Rahmen der Performance Reihe „The Nature of Action“ lädt die koreanische Künstlerin Da In Park Besucherinnen und Besucher in den Garten „Das Dritte Land“ ein, um mit ihr in den ungeteilten Himmel über Berlin zu schauen und dabei dem Flüstern von Menschen und den Geräuschen der Natur aus der Demilitarisierten Zone (DMZ) an der Grenze zwischen Nord- und Südkorea zu lauschen. Ihre Sound-Installation UN/DIVIDED HEAVEN ist ein Parcours aus verschiedenen Hörinseln. Spaziert man zwischen den Bergen des Gartens umher, kann man Gespräche, Wortfetzen, Zwitschern, Gurgeln, Zirpen, das Rauschen des Windes hören. Da In Park hat in den vergangenen zwei Jahren in der streng kontrollierten DMZ eine akustische Landkarte des Gebiets und eine akustische Dokumentation der Geschehnisse aufgenommen. Sie hat historische Tage wie das Gipfeltreffen zwischen Moon Jae In und Kim Jong Un am 27. April 2018 (an diesem Tag wurde das Friedensabkommen zwischen dem Süden und Norden abgeschlossen) sowie das Treffen zwischen Donald Trump und Kim Jong Un am 30. Juni 2019 mit ihren Mikrofonen begleitet: Man hört aufgeregte Stimmen und Rufe, Wünsche und Lachen, man lauscht Erwachsenen, aber auch Kindern. Da In Park, die sich in ihren performativen Installationen vor allem mit der Ästhetisierung von Politik und ethischen Fragen in einer sich zunehmend unsicheren Welt beschäftigt, schafft mit ihrer Klanginstallation UN/DIVIDED HEAVEN einen fantastischen Raum, in dem die Realität der Demilitarisierten Zone und die Utopie des „Dritten Landes“ nebeneinander zu existieren und ineinander zu fließen scheinen.



Da In Park UN/DIVIDED HEAVEN

18. September 2019, von 11 bis 20 Uhr

Das dritte Land fragt nach dem Koreakrieg.

Talk: Die Gräben des Koreakrieges im heutigen Nord- und Südkorea

Nachdem bereits mehr als sechs Jahrzehnte vergangen sind, sind die Spuren des Koreakrieges auch heute noch deutlich zu sehen und zu spüren. Noch immer geht von diesem historischen Erbe eine starke Wirkung aus und verkompliziert das Zusammenwachsen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er ganzen Region Ostasiens. Auseinandersetzung mit Nordkorea und in Südkorea sind Ausdruck davon. Vor diesem Hintergrund befasst sich die Diskussion mit den damit zusammenhängenden historischen Dimensionen, unterschiedlichen Interpretationen und deren unterschiedlichen Implikationen in Nord- und Südkorea.



Talk: Die Gräben des Koreakrieges im heutigen Nord- und Südkorea

Im Rahmen des Kunstprojektes „Das dritte Land“

Veranstalter: Institut für Koreastudien, FU Berlin

Nachdem bereits mehr als sechs Jahrzehnte vergangen sind, sind die Spuren des Koreakrieges auch heute noch deutlich zu sehen und zu spüren. Noch immer geht von diesem historischen Erbe eine starke Wirkung aus und verkompliziert das Zusammenwachsen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er ganzen Region Ostasiens. Auseinandersetzung mit Nordkorea und in Südkorea sind Ausdruck davon. Vor diesem Hintergrund befasst sich die Diskussion mit den damit zusammenhängenden historischen Dimensionen, unterschiedlichen Interpretationen und deren unterschiedlichen Implikationen in Nord- und Südkorea.

Diskutanten:
Prof. Dr. Hannes
B. Mosler,
Dr. Eric Ballbach

25 Juni 2019
19 Uhr

Moderation:
Prof. Dr. Hannes
B. Mosler

St. Matthäus-
Kirche Berlin



Diskutanten:
Prof. Dr. Hannes B. Mosler
Dr. Eric Ballbach

Moderation:
Prof. Dr. Hannes B. Mosler

25 Juni 2019, 19 Uhr

Die berühmte koreanische Tempelküche in der St. Matthäus-Kirche mit der Nonne Jeong Kwan

Das Universum in einer Schale



Das Universum in einer Schale



Im Rahmen des Künstlergartens „Das Dritte Land“ auf dem Kulturforum und anlässlich des Mauerfalls vor dreißig Jahren lädt Keum Art Projects die koreanische Nonne Jeong Kwan zu einer „Tempelküchen-Zeremonie“ (Barugongyang) in die St. Matthäus-Kirche ein. Jeong Kwan, geboren 1956 ist durch die populären Netflix-Serie „Chef’s Table“ und durch das „Kulinarische Kino“ der Berlinale 2017 weltbekannt geworden. Sie wird als „Visionärin“ und „Seherin“ (Brigitte) verehrt, die „die Küche der Zukunft“ (FAZ) kocht. Am 8. November um 19 Uhr verwandelt sich die St. Matthäus-Kirche in einen Ort der kulinarischen Erleuchtung, an dem die beiden Religionen, der koreanische Buddhismus und der deutsche Protestantismus, in einen Dialog treten. An einer langen Esstafel können 40 Gäste das „Barugongyang“ erleben und zusammen feiern - die rituelle buddhistische Speisezeremonie. Das Menü besteht aus drei Gängen, die veganen Zutaten stammen aus dem Künstlergarten „Das Dritte Land“, frischen regionalen Produkten aus Deutschland und dem Kloster Chunjinam, wo Jeong Kwan seit vielen Jahren lebt, meditiert und kocht. Begleitet wird das Abendessen von fermentiertem Kiefern- und Lotustee, die nur in koreanischen Klöstern hergestellt

werden. Ein weiteres besonderes Highlight sind überlieferte traditionelle Speisen aus nordkoreanischen Klöstern. Die Gäste werden in einer der traditionsreichsten evangelischen Kirchen Berlins, die sich als besonderer Ausstellungsraum auf dem Kulturforum etabliert hat (an diesem Abend wird außerdem das neue Deckengemälde von Norbert Bisky in der St. Matthäus - Kirche erstmals zu sehen sein) die 1700 Jahre alte koreanische Tempelküche mit ihren Prinzipien der Achtsamkeit, Nachhaltigkeit, der Fermentation und des Veganismus erleben. Nach dem Dessert wird Jeong Kwan mit Ihren Gästen auf ihre humorvolle Weise ein moderiertes Tischgespräch führen.

Am 8. November um 19.30 Uhr
St. Matthäus-Kirche,
Matthäikirchplatz 1,
10785 Berlin

Veranstalter & Organisation:
Keum Art Projects, crEATers

Kooperation:
St. Matthäus- Kirche

Medientagebuch
Julia Seeliger

Abrakadabra, Hass auf die re:publica!

In jeder noch so kleinen Internetblase ist immer genug Zeit für Drama. Früher haben wir gedacht, das Internet mache uns alle frei, dann dachten wir, das Internet lege uns in neue Ketten, jetzt haben wir eingesehen, dass das Internet vor allem zum Kaufen und Verkaufen taugt. Und als Hobby und Unterhaltung. Jeder kann hier alles spielen.

Ich imaginiere mich selbst als erfolgreichen Blogger, der im Flow an den Themen arbeitet, die ihn interessieren, ja, die ihm zufliegen. Wegen meines avantgardistischen Lebensstils bin ich immer schon früher wach als alle anderen, um die amerikanischen Nachrichten zu lesen und sie für die Deutschen zu übersetzen. Ich bin am Puls der Zeit. Permanent.

Ding Dong, ja hallo, wir haben 2019. René wohnt im Schwulenkiez und ich muss da jetzt mal recherchieren. Die anderen wollen ihn entweder direkt zwangseinweisen oder denken, dass sich das Problem des „Nerdcore“-Bloggers zügig von alleine lösen wird. Seit Jahren schreibt René im Sufi Bullshit ins Internet. Unter anderem hat er der Internetkonferenz re:publica einen Amoklauf angekündigt – mit Toten. Seit einiger Zeit hat er sich auf die Idee fixiert, dass ein Internetkollektiv ihn manipuliere, damit er aufhört zu rauchen, ja, sich einen sauberen Lebenswandel zulegt. Natürlich bin auch ich Teil dieses Kollektivs.

„Rape Culture, Rape Culture“ wimmert René. „Sie haben Nerdcore getötet!“ Vor zehn Jahren schien die Welt noch in Ordnung, damals, als er ein erfolgreicher Kulturblogger war und das ... und alle so Yeah!“-Mem erfand. Doch nun macht René das nach, was ich in den Jahren 2011 bis 2017 aufgeführt habe.

„Hass, Hass, Hass wie noch nie! Die re:publica hat mich ausgegrenzt! Ich bin so alleine, ich habe keine Freunde, das Freundesversprechen des Internets ist falsch! Wir sind gar nicht weit weg nahi!“ Wie/ eine/ Fata Morgana/ so nah und doch so weit! Alleine gelassen worden von jenen, die Tag und Nacht für die kalte Liebe des Silicon Valley werben, für Weltverbesserung mithilfe von Internet-PR und BWL.

Die re:publica sprachlich anzünden zu wollen, ist nicht nur ein naheliegender Wunsch, sondern ein erstrebenswertes Ziel. Man kann da schon auch versuchen, noch härter zu trollen, das macht René auch recht erfolgreich, indem er sich eine profilierte Social-Media-Managerin als Stalkingopfer ausgesucht hat. Gleichwohl trifft René hiermit die Falsche. Eben nicht die re:publica-Männer hinter ihr, die er eigentlich adressieren will. Denen allerdings scheint das Leid dieser Frau egal zu sein. Eine Nachfrage bei diesen Männern brachte nichts zutage. Vielleicht fühlen sie sich schuldig. Vermutlich fühlen sie gar nichts.

Und so sitze ich jetzt bei René, den ich zuvor genau einmal im Leben getroffen habe, nämlich auf LSD, und versuche ihm nahezubringen, dass es mit dem gerechten Lohn für die getane Arbeit etwas komplizierter ist als vermutet. Und dass wir, die er sich als neue Freunde ausgesucht hat, ihm keinesfalls eine Kur bezahlen werden oder eine Zahn-OP. Für so was ist in Deutschland nämlich der Sozialstaat da.

Inzwischen ist ein Buch über Nerdcore erschienen: *Tan X – ein gut gemachter Fake* von Emily Williams (Marta Press 2019). Das Blogger-Elend orchestriert die Protagonistin, die wirklich was macht – nämlich sich vor der Bundestagswahl 2017 in AfD-Gruppen einschleichen und sie übernehmen. Nach einer wahren Geschichte.

Der Autorin sollte sofort das Bundesverdienstkreuz verliehen werden. Nerdcore braucht eine Kur oder einen Sozialarbeiter. Und die re:publica-Männer gehören in eine Tigergrube. Da können sie dann Selfies schießen.



Kosmopolitin: Gut geputzt und adrett verpackt trat auch „Anemone Amurensis“ die Reise aus Südkorea an



uns in die Natur, anstatt sie zu manipulieren wie in Europa.“ Ursprünglich waren es 65 Arten, die Han und Kim für ihren Garten nach Berlin holen wollten. Die Liste stellten sie mit Hilfe von Botanikern des südkoreanischen Baekdudaegan National Arboretums, des botanischen Gartens in der gleichnamigen Gebirgskette, zusammen. Sie ging dann ans Berliner Pflanzenschutzamt, das für 45 Arten die Einfuhr genehmigte. Eine überlebte die Reise nicht. Insgesamt, überschlägt Kim, wurden rund 1.500 Setzlinge und Samen eingeführt. Gut

Erst war der Kontakt in den Norden gut. Dann platzte Trumps Gipfeltreffen

zwei Drittel der Sorten sind in Südkorea heimisch, ein Drittel in Nordkorea. Und vielleicht ist die Pflanzendiplomatie, die seit zwei Jahren Teil der Arbeit der Künstler und untrennbar mit den politischen Entwicklungen verknüpft ist, viel entscheidender für das Gesamtkunstwerk als das Bild, das sich aus den nach und nach erblühenden Pflanzen, den dunklen Steinen und einem künstlichen Sprühregen ergeben wird, der den Garten vernebeln und die Berliner Sommerluft ein wenig den klimatischen Bedingungen in den koreanischen Hochlagen annähern soll.

Als sie 2017 mit der Arbeit an dem Projekt begannen, erzählt Keumhwa Kim, sei nicht daran zu denken gewesen, die Pflanzen, die im Norden wachsen, direkt aus Nordkorea zu beziehen. „Unter der Regierung von Präsidentin Park war unvorstellbar, dass wir die nordkoreanische Botschaft in Berlin besuchen.“ Doch Parks Nachfolger Moon Jae-in setzte auf Annäherung, und nach dem Gipfeltreffen zwischen Nord- und Südkorea am 27. April 2018 installierten die beiden Länder ein Verbindungsbüro für den Kulturaustausch in der grenznahen nordkoreanischen Stadt Kaesong.

„Hat etwas Surreales“

Im Februar diesen Jahres konnten Seok Hyun Han und Keumhwa Kim in der nordkoreanischen Botschaft in Berlin vorsprechen. „Sie haben zwar ein völlig anderes Verständnis, was Kultur und Zusammenarbeit betrifft. Sie denken, warum müssen die Pflanzen nach Berlin kommen, warum soll man die Probleme in einem dritten Land unterstreichen? Das liegt vielleicht an der nordkoreanischen Chuch'e-ideologie: Wir stehen auf eigenen Füßen. Aber sie waren hilfsbereit und haben empfohlen, den Prozess zu institutionalisieren.“ Die Botschaft regte an, die Pflanzenliste über das Verbindungsbüro an den Joseon Central Botanical Garden in Pjöngjang weiterzuleiten. Absprachen wurden getroffen, alles war vorbereitet, die Gespräche gingen so weit, dass die nordkoreanische Seite erwog, eine Ausfuhr über Südkorea zu genehmigen, sollte China eine direkte Route nach Berlin nicht ermöglichen. Dann kam ihnen ein Diplomat namens Donald Trump in die Quere.

Seit dem gescheiterten Gipfeltreffen am 28. Februar zwischen Trump und Nordkoreas Machthaber Kim Jong-un herrscht Stillstand. Es ist nicht so, dass ihr Antrag jetzt abgelehnt worden wäre. Aber das Verbindungsbüro stellt sich tot. „Kann sein, dass sich nach dem nächsten Gipfeltreffen wieder etwas bewegt“, sagt Keumhwa Kim. „Im Moment ist der direkte Weg nach Pjöngjang verstellt.“

Das Weiß der Blüten, erklärt Seok Hyun Han dann noch, soll übrigens nicht für Frieden, Reinheit oder Unschuld stehen. Es ist einer rein visuellen Entscheidung geschuldet, weil sie sich von traditionellen koreanischen Tuschemalereien inspirieren ließen, die schwarz-weiße Bergansichten zeigten. „Es hat etwas Surreales, Nicht-Konkretes. Das man sich aber trotzdem vorstellen kann.“

Das dritte Land – Ein Künstlergarten Seok Hyun Han, Seung Hwoe Kim Matthäikirchplatz, Kulturforum, Berlin, bis 9. November 2019

Blühende Fantasie

Einheit Die Künstler Seok Hyun Han und Seung Hwoe Kim bauen in Berlin einen Garten. Hier sollen Blumen aus Südkorea und Nordkorea zusammen wachsen

■ **Christine Käppeler**

Drei kleine Enziane blühen auf dem Gipfel. Nicht blau, blau, sondern weiß – in dieser Farbe sollen nach und nach alle Setzlinge blühen, die von den Künstlern Seok Hyun Han und Seung Hwoe Kim aus Korea nach Berlin verpflanzt wurden. Seit zwei Jahren arbeiten die beiden Südkoreaner an ihrer Idee, in der ehemals geteilten Stadt einen Garten zu bauen, in dem Blumen aus Nord- und Südkorea zusammen wachsen. Wobei man sich ihren Garten nicht als Ansammlung von Beeten vorstellen darf, in denen sich die Pflanzen schwesterlich umschlingen. Auf dem Platz vor der Matthäuskirche, im Bau-stellenwirrwarr zwischen Philharmonie und Neuer Nationalgalerie, den ihnen das Berliner Grünflächenamt schließlich zugebilligt hat, haben Han und Kim eine künstliche Landschaft aus schwarzen Basaltbrocken und Erde errichtet, die für die Gebirgskette zwischen den Bergen Seoraksan in Südkorea und Paektusan an der Grenze von Nordkorea zu China stehen soll. Ihr Basalt, erzählen die Künstler sichtlich amüsiert, stammt aus demselben Kasselsteinbruch, aus dem Joseph Beuys 1982 die Säulen für seine 7000 Eichen auf der Documenta 7 holte.

Enzian statt Kimilsungja

Noch sehen die Setzlinge, die zwischen den Brocken wurzeln, etwas kümmerlich aus. Was ihnen nicht zu verdenken ist, angesichts der Tour, die sie hinter sich haben. In Südkorea wurden ihre Wurzeln von jegli-

cher Erde gereinigt, um den Import von Keimen zu verhindern, dann wurden sie in Plastik eingetütet, ausgeflogen und am Botanischen Garten in Berlin-Dahlem akklimatisiert. Stellen Sie sich vor, erklärte ihnen einer der dortigen Mitarbeiter, alle Bakterien in ihren Organen sind weg, und so müssen Sie in einer ihnen vollkommen fremden Umgebung klarkommen. Die drei Enziane, die auch in Korea eine Rarität sind

und vor allem im Norden und in den hohen Lagen wachsen, haben die Prozedur in voller Blüte durchgestanden.

In Nordkorea haben Blumen oft etwas Staatstragendes. Es gibt neben der offiziellen Nationalblume, einer weißen Magnolie, eine Orchidee und eine Begonie, die den verstorbenen Staatsführern noch zu Lebzeiten gewidmet wurden: die Kimilsungia und die Kimjongilia. Die Begonie für den „geliebten Führer“ wurde 20 Jahre lang erforscht, auf dass sie länger blüht und öfters im Jahr blüht als alle anderen ihrer Art und vor allem auch an Kim Jong-ils Geburtstag. Sie soll Robustheit symbolisieren, ein Volk, das sich trotz aller Angriffe von außen immer wieder berappelt. Beiden Blumen wird einmal im Jahr eine große Gartenschau ausgerichtet, in der Kimilsungia-Kimjongilia-Austellungshalle in Pjöngjang.

Die Symbolik oder auch Schönheit der einzelnen Pflanzen hat Seok Hyun Han und Seung Hwoe Kim für ihren Garten, den sie *Das dritte Land* nennen, weniger interessiert. Ihnen geht es um das Gesamtbild einer Landschaft, das sich aus den schwarzen Steinen, der dunklen Erde und den weißen Blüten ergeben soll. Und das viel eher der koreanischen Vorstellung eines Gartens entspricht als der typische deutsche Vorgarten mit akkurat gezogenen Hecken und Rabatten. Das liegt auch daran, erklärt Keumhwa Kim, die den Künstlern als Kuratorin und Dolmetscherin zur Seite steht, dass fast 70 Prozent der Koreanischen Halbinsel aus Bergen bestehen: „Koreaner würde einen Garten nie künstlich anlegen. Sie bauen ihr Haus dort, wo die beste Aussicht ist, und der Berg an sich ist der Garten. Wir integrieren



Seok Hyun Han, Seung Hwoe Kim



Berlin Garden Evokes a Dream of Peace

"Das dritte Land" (The Third Country), a temporary art garden in Berlin, is a space where Germany and the two Koreas can share the pain of division and the importance of reunification. The three South Korean artists who built the garden keep their fingers crossed for inter-Korean relations to improve and for North Korea to send its plants and flowers to complete their project.

Kim Hak-soon, Journalist

1. The two artists built a replica Baekdu Daegan (Great White Head Ridge) with basalt and soil and installed a water mist system to produce fog to create the image of the chain of mountains, which Koreans regard as the backbone of their territory.

2. "Das dritte Land" (The Third Country), covering 1,250 square meters (32m x 50m), is located in front of St. Matthew Church. The artists originally planned to put together 1,000 plants representing 60 varieties (37 from South Korea and 23 from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s tepid response limited the garden to only 1,500 plants of 45 varieties (23 South Korean and 14 North Korean).



desire for it and began to travel freely among themselves. Then it flashed through my mind that I hadn't talked with anyone about Korean unification for over a decade. I suddenly felt like working on something related to the two Koreas."

The Vision
Han believes that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Baekdu Daegan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ltural and emotional homogeneity of ethnic Koreans. The uninterrupted chain of mountains running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is now a treasure trove of ecological biodiversity.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garden, Han contemplated how to visually express such symbolism.

"Clearing After Rain in Mt. Inwang" was drawn by Jeong Seon (pen name Gyeongjae; 1676-1759), who pioneered the art of real-life landscape with his paintings depicting actual Korean scenery, a departure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ual landscapes of previous eras. Han regards the work as a masterpiece that reflects the cultural sensibilities handed down on both sides of the divided peninsula. "With this cultural background in mind, I wanted to express the beauty of the foot of a mountain shrouded in a thick, swirling fog after rain," he said.

He thought over and over about how to embody the landscape of Korean mountains in garden art. Finally, he was able to create the effect of an ink

and wash painting with white wildflowers coming into bloom beneath a black rock and a water mist system to produce fog. He used basalt and soil to create a miniature model of the Baekdu Daegan, conjuring up a dreamy atmosphere as if it is shrouded in a thick cloud of fog.

The Opening
The garden project did not transpire unencumbered. Obtaining administrative approval to build a park from the Berl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Park Authority was the highest hurdle. A maze of regulations had to be navigated and compromises reached to manifest the artists' ideas while also satisfying lo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civil engineering works.

58 KOREANA Spring 2020



1. Installation artists Han Seok-hyun (left) and Kim Seung-hwo tend to "Das dritte Land" (The Third Country), a temporary art garden which opened in Berlin in May 2019.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wishing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garden is at Potsdamer Platz, near the wall's remains. It will be open until October 2020.

2. Windflowers, which grow in an alpine climate north of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in full bloom. To give an impression of an ink and wash landscape painting, windflowers and other white wildflowers, such as creeping catfoot, European starflower, silver meadow-rue and gooseneck loosestrife, were planted in a bed of soil on black rocks.

Near the remains of the Berlin Wall lies an art garden that promotes a unique theme: "Nature Knows No Borders." Here, visitors can enjoy a landscape adorned with plants and flowers from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magining that land as undivided. The atmosphere exudes an appeal to quietly pray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Kim Keum-hwa, the curator of a contemporary art planning agency in Berlin and manager of the garden project, calls the floral work "The Third Country." She borrowed the idea from Jacopo Bonfadio, an Italian humanist and historian of the Renaissance period who defined gardens as "terza natura," or a "third nature" – a natural space created and upgraded by man to the level of art.

"Humans created gardens because of their yearning for nature and desire to establish order within it," Kim says. "The name of this garden reflects that idea. It is intended to spark a utopian imagination about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visitors can look beyond the present day of our divided land."

The Berlin garden's centerpiece is a model of the Baekdu Daegan chain of mountains, a theme inspired by "Clearing After Rain in Mt. Inwang" (Inwang jeonido), an ink and wash landscape painting of the 18th-century Joseon era which is well-known not only in both Koreas but abroad as well.

The Baekdu Daegan (Great White Head Ridge) mountain chain forms the backbone of the Korean peninsula. It flows like a colossal river, aptly starting with the peninsula's highest peak, Mt. Paektu (a.k.a. Mt. Baekdu), on the northern border, passing through Mt. Kumgang (a.k.a. Mt. Geumgang) and Mt. Soarak, and reaching Mt. Jiri and the south coast.

Han conceived of the idea of an art garden when he was a resident artist in Berlin. He explains, "When I first arrived in Berlin in the spring of 2016, everybody here looked so peaceful and happy. It occurred to me that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brought them stability and peace. I was moved to tears when I watched a documentary about the moment that the Berlin Wall came down.

"I thought it would be necessary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to meet and talk with each other more often instead of simply waiting for a political decision to materialize, just as the Germans achieved their reunification after both sides expressed their

Collaboration
The garden, built in the Kulturforum at Potsdamer Platz, is the result of a three-year collaboration involving Kim and two installation artists, Han Seok-hyun and Kim Seung-hwo. Its opening on May 23, 2019 was among many events of the year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all of the Berlin Wall. Kim Keum-hwa managed overall planning while Han conceived of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ideas for the project and Kim Seung-hwo arranged and organized the plants and flowers.

Han seeks to combine contemporary art and ecological practices, shutting between Berlin and Seoul. Kim Seung-hwo focuses on social, urban-architectural and ecological changes that have arisen around the Berlin Wall before and after its fall. He uses public art as a tool to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art and landscape.

Han conceived of the idea of an art garden when he was a resident artist in Berlin. He explains, "When I first arrived in Berlin in the spring of 2016, everybody here looked so peaceful and happy. It occurred to me that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brought them stability and peace. I was moved to tears when I watched a documentary about the moment that the Berlin Wall came down.

"I thought it would be necessary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to meet and talk with each other more often instead of simply waiting for a political decision to materialize, just as the Germans achieved their reunification after both sides expressed their

KOREAN CULTURE & ARTS 57

MG 2
MEHR GENUSS
MG 3

Essen ist Andacht

Sie besitzt kein Restaurant, keine Sterne oder Hauben. Und doch ist sie mit ihrer koreanischen Tempelküche der neue Star der kulinarischen Szene: die buddhistische Nonne **JEONG KWAN**

Von Felix Denk

Der Buddhismus verbot einst Fleisch, was die Koreaner im 19. Jahrhundert nicht wahrhaben wollten. Heute ist die Tempelküche ein beliebter Bestandteil der koreanischen Küche. Die Nonne Jeong Kwan hat sich für die Tempelküche entschieden, die sie in ihrer Küche in Berlin praktiziert. Sie hat sich für die Tempelküche entschieden, die sie in ihrer Küche in Berlin praktiziert. Sie hat sich für die Tempelküche entschieden, die sie in ihrer Küche in Berlin praktiziert.

Kein bisschen anstößig

Die goldenen Zwanziger, die Prohibition – herrlich verurteilte Zeiten, nicht nur in Amerika. Und die Tradition der **FÜLSTERBARS** lebt weiter, auch in Berlin. Mehr über die heimlichen Orte

Von Peter Eickmann

Die goldenen Zwanziger, die Prohibition – herrlich verurteilte Zeiten, nicht nur in Amerika. Und die Tradition der Fülsterbars lebt weiter, auch in Berlin. Mehr über die heimlichen Orte

EAT BERLIN FREE TICKETS

Freitagsgala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Frühstück de luxe
Freitag, 11. Januar 2020, 10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Klassiker reloadet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Checkpoint live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Kiecklers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Grillabend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Große Winzer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Kleine Koche
Freitag, 11. Januar 2020, 19 Uhr
Freiwillig, Spenden willkommen

Geschüttelt oder gerührt?

Im Angebot auf der Seite „Mein Genuss“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Tatort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studio galerie Berlin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Einbauküchen am Schloss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Wochenpreis 12,90 €

Impressum

Künstler

Han Seok Hyun * 1975, lebt und arbeitet in Berlin und Seoul

Han Seok Hyun setzt sich in seinen raumgreifenden Installationen im öffentlichen Raum mit dem Ursprung der Natur und ihrer Reproduzierbarkeit auseinander. So führt er uns modellhaft biologische oder gesellschaftliche Prozesse in der Stadt und die Ambivalenz unseres Naturverständnisses vor Augen. Han Seok Hyun lebt und arbeitet in Berlin und Seoul.

Künstler

Kim Seung Hwoe * 1978, lebt und arbeitet in Seoul

In seiner Kunst im urbanen Raum setzt sich Kim Seung Hwoe mit der Verbindung von bildender Kunst und der Landschaftsarchitektur auseinander. Ausgehend von der geologischen und anthropologischen Recherche über Natur und Kultur kreiert er prozesshafte Arbeiten im öffentlichen Raum. Kim Seung Hwoe lebt und arbeitet in Seoul.

Kuratorin

Keumhwa Kim * 1978, lebt und arbeitet in Berlin

Keumhwa Kim arbeitet nach dem Studium der Germanistik, der Museologie und der Kunstwissenschaft in Seoul und Berlin seit 2011 als Ausstellungproduzentin und Kuratorin. Ihre Schwerpunkte sind Kunstprojekte im öffentlichen Raum sowie Ausstellungen im interkulturellen und interdisziplinären Kontext. 2014 gründete sie ein Büro mit Sitz in Berlin, mit dem Ziel, einen nachhaltigen Kulturaustausch zwischen Deutschland und Asien zu befördern und Kollaborationen zwischen Künstlern und Kunstinstitutionen zu initiieren.

Grafikdesign & Visuelle Kommunikation

Sam Kim www.samkim.de

© Keum Art Project, 2020

Kontakt

Keum Art Projects

Schillingstr. 31, 10179 Berlin

www.keumprojects.com

kkh@keumprojects.com

M +491728853292